

口訣語 如(ㄱ·支·ㄷ·ハ·印)의 解讀法 研究

--다(如 ㄱ), ㄱ(如 支), 마즈기(如 ㄷ·如 ハ·如 印) 案--

金 永 萬*

< 목 차 >

- I. 序 論
- II. '如 ㄱ',와 '如 支'의 구분 解讀法
 - '如 ㄱ'는 '다'로, '如 支'는 'ㄱ'으로 -
- III. '如 ㄷ'와 '如 印' 및 '如 ハ'의 종합 解讀法
 - 모두 '가즈기(가죽)'로 읽는다 -
- IV. 結 論

<Abstract>

In the transcription system of kugyul, original Chinese 如 is transcribed as 如 ㄱ, 如 支, 如 ㄷ, 如 ハ or 如 印. Their usages and source books are as follows:

source books				meaning	the case of arguments of the words
舊譯仁王經	華嚴經(疏)	金光明經	瑜伽師地論		
如 ㄱ	如 支	如 支	如 支	like ~, as ~	no case mark
如 ㄷ	如 ㄷ, 如 印	如 ハ	如 ハ	according to ~	accusative or locative

Former researchers translated 如 ㄱ and 如 支(group A) into 다(ㄷ)/ta(h)/, and 如 ㄷ, 如 ハ and 如 印(group B) into ㄱ/ket/ in Middle Korean(MK).

如 ㄱ can be translated into 다(ㄷ)/ta(h)/ 'like', because ㄱ is the symbol of /ta/. But 如 支 cannot be translated into 다/ta/ but into ㄱ/ket/ 'like'. And 如 ㄷ, 如 ハ and 如 印 cannot be translated into ㄱ/ket/ because ハ and

* 전 영남대학교 교수

ㅁ do not represent /ket/. Moreover the meaning of ㄹ('like') transcribed into 如ㅁ, does not correspond to 如ㅁ, 如ㅁ and 如ㅁ which means 'according to'.

ㅁ (from 多/ta/) is the symbol of /ta/ and ㅁ (from 支 or 枝/kač/ 'branch') is that of /ket/. Therefore we must translate 如ㅁ into /ta/ and 如ㅁ into /ket/. In MK /ta(he)/ and /ket/ are two words which have almost same meaning 'like'.

如ㅁ, 如ㅁ and 如ㅁ are three transcriptions representing three different parts of a word. ㅁ (from 邊 /kes/ 'edge') is a symbol of ㅁ/keč/, ㅁ (from 卽/čik/) that of /ček/ while ㅁ (from 只/ci/ 'a suffix') symbolizes /k(i)/. So we can reconstruct /keček(i)/ by synthesizing them. keček(i) which means 'equal' in MK corresponds to Chinese 如 in the meaning and take(have) an argument of accusative or locative just like 如ㅁ, 如ㅁ and 如ㅁ in the documents of Kugyol. The above can be summarized as below.

origin	symbols		words		
	symbol	sound	kugyul	word(sound)	meaning
多	ㅁ	/ta/	如ㅁ (ㅁ)	ta(h)	like ~; as ~
支(枝)	ㅁ	/ket/	如ㅁ	ket	like ~; as ~
邊	ㅁ	/keč-/	如ㅁ	keček(i)	according to ~
卽	ㅁ	/-ček-/	如ㅁ	keček(i)	according to ~
只	ㅁ	/-k(i)/	如ㅁ	keček(i)	according to ~

We can conclude the discussed views as the table below.

words	former view	the writer's view	meaning
如ㅁ	ㅁ /ta/	ㅁ /ta/	like ~; as ~
如ㅁ	ㅁ /ta/	ㅁ /ket/	like ~; as ~
如ㅁ	ㅁ /ket/	ㅁㅁㅁ /keček(i)/	according to (resemble to ?)
如ㅁ	ㅁ /ket/	ㅁㅁㅁ /keček(i)/	according to (resemble to ?)
如ㅁ	ㅁ /ket/	ㅁㅁㅁ /keček(i)/	according to (resemble to ?)

I. 序 論

‘如支’, ‘如ㄷ’, ‘如ハ’, ‘如印’의 다섯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文獻에 따른 分布와 그 意味, 統辭의 特性은 다음과 같다.

[表-1]

出 典				意味	統辭의 特性 (論項의 格)
舊譯仁王經	華嚴經(疏)	金光明經	瑜伽師地論		
如ㄱ	如支	如支	如支	~(와) 같음	格標識 없음
如ㄷ	如ㄷ, 如印	如ハ	如ハ	~를/에 따름	對·處格 標識

맨 처음 발견된 釋讀口訣 資料 舊譯仁王經에는 ‘如ㄱ’와 ‘如ㄷ’만 나온다. 그러나 뒤에 발견된 華嚴經, 金光明經, 瑜伽師地論에는 ‘如ㄱ’ 대신 ‘如支’가 쓰이고 ‘如ㄷ’는 華嚴經에는 그대로 쓰였으나,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에는 ‘如ハ’로 바뀌었으며, 華嚴經에는 ‘如ㄷ’ 대신에 ‘如印’을 쓴 곳도 한 군데 있다. [表-1]에서 보듯이 如ㄱ系(如支 포함)는 “(마치) ~ 같다”는 뜻의 直喩的 표현에 쓰이고, 如ㄷ系(如ハ, 如印 포함)는 “~를/에 따라(따르다)”의 뜻으로 쓰였다. 前者는 그 論項에 格標識가 없는 形容詞的 單語라면, 後者는 對格(乙) 또는 處格(乙+) 標識가 있는 動詞的 單語로서 兩者는 意味, 文法面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들에 대한 解讀法¹⁾으로, 종래의 通說(南星祐·鄭在永 1998; 南豐鉉 1998·1999; 沈在箕·李丞宰 1998; 鄭在永 1998 등)로는, ‘如ㄱ’와 ‘如支’를 모두 ‘다’로 읽었고, 白斗鉉(1993, 1996)은 ‘如支’의 ‘支’를 華嚴經의 다른 ‘支’들과 같이 ‘히’로 읽었다. 이에 비해 筆者(金永萬, 2000)는 ‘如ㄱ’는 ‘다’로 읽지만, ‘如支’는 ‘곧’으로 읽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如ㄷ’에 대해서는 通說은 모두 ‘곧’으로 읽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如ハ’도 ‘如ㄷ’와 같이 보는 듯하나, 南豐鉉(1998, 1999)은 ‘如ハ’는 ‘곧기’로 읽고 있다. ‘如ㄷ’는 筆者도 처음에는 ‘곧’으로 보았으나(口訣學會 2000년 여름

1) ‘解讀法’의 研究란 다시 말하면 해당 表記 單位가 어떤 音形을 가진 어떤 形態素 또는 單語를 반영하고 있느냐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연구회), 金永萬(2000:58)에서는 이를 취소하였고, 2001年 10月 27日 口訣學會 月例講讀會 때 유인물을 통하여 ‘如ㄸ’와 ‘如ハ’를 다 같이 ‘ㄱ죽기(ㄱ죽)’로 읽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華嚴經에 단 한 예가 보이는 ‘如印’에 대해서는 대체로 ‘如ㄸ’와 같이 ‘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南豐鉉(1994)은 吏讀 ‘印/긔’을 근거로 ‘ㄱ’으로 읽었다. 筆者는 이 글을 쓰는 중에 문득 ‘印’이 ‘卽’의 略體(變體)로 ‘즉~죽’을 표기한 것으로 본다면, ‘如印’도 ‘如ㄸ’, ‘如ハ’와 같이 ‘ㄱ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위에서 본 ‘如’에 대한 다섯 가지 口訣表記의 解讀法을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表 2]

口訣語	通說 (別見)	金永萬	出典
如 1	다	다	舊譯仁王經
如 支	다 □히(白斗鉉)	ㄱ	金光明經, 瑜伽師地論, 華嚴經
如 ㄸ	ㄱ	ㄱ죽기(ㄱ죽)	舊譯仁王經, 華嚴經
如 ハ	ㄱ? ㄱ기(南豐鉉)	ㄱ죽기(ㄱ죽)	金光明經, 瑜伽師地論
如 印	ㄱ? ㄱ (南豐鉉)	ㄱ죽기(ㄱ죽)	華嚴經,

本稿에서는 ‘如’에 대한 여러 口訣表記와 諸家の 解讀法을 비교 검토하고, 筆者가 저와 같은 解讀法을 導出한 論據를 提示함으로써 讀者들의 批判을 받고자 한다. ‘如 支’에 대해서는 이미 共同研究會와 拙稿(2000)를 통하여 밝힌 바 있지만, 설명이 미진한 점도 있고, 또 이 다섯 가지 口訣表記는 각각 분리하여 논하는 것보다는 相互 比較하여 異同을 밝혀서 논하는 것이 說明力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것도 포함하여 논의를 재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口訣語를 어떻게 읽을까 하는 것은 해당 口訣字의 분석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아울러 해당 口訣語가 놓인 文脈(環境)을 따라 形態, 統辭上的 異同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口訣字 ‘支’는 ‘支’ 또는 ‘枝’에서, ‘ㄸ’는 ‘邊’에서, ‘印’은 ‘卽’에서 온 것이라는 얼른 보면 다소 당돌한듯한 推定을 내리고 거기 따른 解讀法을 試驗하였다. 通說의 解讀法은 ‘如(1·支)’와 ‘如(ㄸ·ハ·印)’은 統辭의 特性에 의

하여(鄭在永1998:123-4) 口訣字의 異同에 구애되지 않고 前兩者는 ‘다’로, 後三者는 ‘굴(기)’으로 보았으나,²⁾ 필자는 같은 統辭的 역할을 하는 ‘如 ㄱ-’와 ‘如 支-’도 單語 內部의 形態素 연결에 差異가 있다는 點과, 口訣字 ‘支’가 ‘ㄱ’와 同一한 音を 나타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觀點에서 ‘如 ㄱ’와 ‘如 支’가 나타내는 語形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았다.

어떤 口訣 表記가 어떤 語辭·音形을 나타낸 것인가는 쉽게 발견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예컨대 ‘ㄱ’가 釋讀口訣에서 ‘다’를 表音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吏讀에서 ‘ㄱ, 갓’으로 읽히는 ‘ㄷ’도 얼른 보면 문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들에 비해 ‘支’와 ‘ハ’, ‘印’은 感을 잡기가 쉽지 않다.³⁾ 그 때문인지, 通說에서는 ‘如 支’는 ‘如 ㄱ’를 따라 ‘다(ᄃᆞ)-’로, ‘如 ハ’는 ‘如 ㄷ’에 따라 ‘굴’에 對應되는 것으로 쉽게 結論을 내렸다.

그러나, 筆者는 앞에 든 口訣語 解讀의 몇 가지 조건들을 생각할 때, 通說에 만족할 수는 없었다. 이를테면, ‘如 支’에 ‘다’를 代入하여 該當文獻을 읽으면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생기고, ‘如 ㄷ’類는 目的語를 가진 他動詞인데 그 자리에 副詞(形容詞)인 ‘굴(ᄃᆞ)’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如 支’와 ‘如 ㄷ’類의 對應語는 再考할 必要가 있을 것 같았다.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독법을 모색한 결과가 表-1에 나타난 筆者의 案이다. 口訣字에 대한 認識面을 비교해 볼 때, 通說에서는 알기 쉬운 ‘ㄱ’와 ‘ㄷ’만을 重視하고, 좀 까다로운 ‘支’, ‘ハ’, ‘印’은 輕視한 데 비해, 筆者의 경우는 ‘ㄱ’와 ‘支’ 사이의 差別性에 주목하여, ‘ㄷ’, ‘ハ’, ‘印’을 모두 反映하여 하나의 語形으로 再構한 것이다.

여기 대한 具體的인 내용을 本論에서 詳論하기로 하자.

-
- 2) 南豐鉉은 ‘如 ハ’는 ‘如 ㄷ’와는 달리 ‘굴(기)’로 읽었으나, 鄭在永(1998)의 金光明經 ‘한글 轉寫’란에도 ‘如 ハ(굴)’(163쪽), 또는 ‘如 ハ’(190쪽)와 같이 확실히 한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斷定은 삼가는 것 같다.
 - 3) 특히 ‘支’는 華嚴經(疏)에서는 ‘如 支’ 외의 雜多한 漢字에도 붙어 있어 혼란을 加重시키고, 이것으로 하여 指定文字說(李丞宰 1993·1998)이 힘을 얻기도 하고, 白斗鉉(1993·1996)의 ‘히’로 統一하려는 試圖도 나타났다.

II. ‘如 ㄹ’와 ‘如 ㅈ’의 구분 解讀法

1. ‘如 ㄹ’는 舊譯仁王經에만 나오고(1a), ‘如 ㅈ’는 金光明經(1b), 瑜伽師地論(1c), 華嚴經(1d)에 나온다.

- (1) a. 香ㄹ 如ㄹ車輪、花ㄹ 如ㄹ須彌山王、如ㄹ雲、〈舊譯仁王經上 2:14〉
- b. 譬ㄹ 如ㅈ空谷ㅈ 響、〈金光明經三 13:15〉
- c. 如ㅈ是、信解ㄹ生尸已ㄹ斤〈瑜伽師地論什 05:04〉
- d. 身ㄹ充徧ㄹ如ㅈ虛空、安住不動ㄹホ〈華嚴經十四 14:7-8〉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는 口訣 표기는 달라도 다 같이 論項에 格標識가 없으며, 그 뜻이 ‘~같이/같다(like/as)’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 해당하는 中世國語에는 ‘갈’과 ‘다ㅎ-’가 있다.

이 중 ‘如 ㄹ’가 ‘다’로 읽힌다는 것은, ‘ㄹ’가 高麗 釋讀口訣에서 모두 ‘다’로 읽히고, 漢字 ‘如’는 鄉札, 吏讀 등에 借字로 쓰여서 ‘다’로 읽힌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⁴⁾ 거기다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如’의 뜻을 가진 ‘다ㅎ-’라는 單語가 제한적인 語形이긴 하지만 15-6세기 문헌에 나온다. 그래서 通說에서 ‘다’로 읽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如 ㅈ’는 ‘如 ㄹ’와 口訣字가 다른데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通說에서는 ‘如 ㄹ’를 ‘다’로 읽던 慣性을 그대로 延長하여 역시 ‘다’로 읽었으나, 筆者(金永萬, 2000)는 ‘如 ㅈ’의 口訣字 ‘ㅈ’는 原字 ‘支/枝’의 訓 ‘갓’의 訓假로 여기서는 ‘갈’으로 읽어야 한다고 보았다. ‘如 ㅈ’를 ‘갈’으로 읽는 데는 다음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

2. ‘다ㅎ’와 ‘갈’: ‘如 ㄹ’와 ‘如 ㅈ’를 모두 ‘다’로 읽어야 하느냐, 前者는 ‘다’로

4) 口訣字 ‘ㄹ’는 ‘多’를 音借한 것으로 “多→ㅈ→ㅅ→ㄴ→ㄹ”와 같이 簡化~變形된 것으로 아는데, 李丞宰(1993:333-6; 1998:35)의 ‘ㄹ’가 ‘如’에서 온 것 같다는 推定이 允當을 끈다.

後者は ‘ᄃ’으로 읽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되는 두 단어 ‘다ᄃ’와 ‘ᄃ’의 實體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먼저 ‘다’에 관계되는 文獻 기록을 보자.

- (2) a. 二月入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入불 다호라 <樂學軌範 動動>
 b. 眞如法·이 ᄃ나·히·론·주·를 實다·히 :아·다·몬홀·씩(由不如實知眞如法一)<楞嚴經諺解四 13b>
 c. 實다·히 ·보건·덴 부터·는 … 달·옴 :업·스시·며(如實而觀 佛無·殊) <金剛經三家解五 12b>
 d. 本寺·에 法다·히 다·가 :두디(於本寺에如法安置호디) <六祖法寶壇經諺解 下 88a>

여기 ‘다호라, 다히’의 어근은 ‘다ᄃ(ᄃ)’로서 末音 ‘ᄃ(ᄃ)’가 없이 ‘다’만으로는 ‘如’의 뜻을 나타낼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사정은 釋讀口訣 ‘如 ㄱ’에서도 마찬가지로서 ‘如 ㄱ’는 예외 없이 ‘ᄃ(ᄃ)’가 隨伴하여 ‘如 ㄱ ᄃ’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 (3) 香ᄃ 如ᄃᄃ 車輪、花ᄃ 如ᄃᄃᄃᄃ 須彌山王、如ᄃᄃ 雲、<舊譯仁王經2:14>

따라서 ‘如 ㄱ’는 ‘다’로만 읽지만 뒤에는 반드시 ‘ᄃ’가 오기 때문에 ‘다ᄃ’라는 어간은 100% 살아 날 수 있다.

필자의 이런 논의에 대해서 口訣學會 第26回 공동연구회 발표 때 토론(이병기)에서 ‘ㄱ’가 ‘ᄃ’ 없이 쓰이는 예로 박진호(1996:81)의 예문 (40), (41)에 인용된 楞嚴經 口訣의 ‘-ᄃ ㄱ (如)’를 들었다. 그러나 ‘-ᄃ ㄱ (如)’는 여기서 논의하는 ‘如 ㄱ’, ‘如ᄃ’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즉, 그것은 용언의 관형사형 ‘-ᄃ(ᄃ)’ 뒤에 나타나는 이른바 불완전(형식) 명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현대어 ‘(-ᄃ) 듯-’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楞嚴經諺解에서는 ‘ᄃ(하야)’로 번역하고 있다. 거기 비해 ‘如 ㄱ’, ‘如ᄃ’는 박진호(1996:81)의 (37), (38)의 예문(이 절 끝의 A, B)처럼 반드시 체언(‘말’) 또는 체언형(‘닐옴’)을 격표지 없이 論項으로 취한

다.

다음에 ‘굴’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굴’은 원래 副詞로서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ㅎ-’와 合成하여 用言(形容詞)이 되기도 한다.⁵⁾ 다음의 (4)는 前者, (5), (6)은 後者의 예이다.

- (4) a. 하·늘 :벼·리 :눈 ·굴 다·니이·다(天星散落如雪) <龍飛御天歌 50章>
 b. 妻眷·이 드외수·바 하·늘 ·굴 섬·기:습더·니 <月印千江之曲 140章>
- (5) a. ·이 ·굴·호·물 ·내 듣·오·니(如是我聞) <楞嚴經諺解一22b>
 b. ·이 ·굴·호 法·을 ·내 부터·를 조·짜·와 듣·오·라(如是之法 我從佛聞) <同 30b>
- (6) a. 塵沙·는 塵··굴·沙 ·굴·닷 :마리·라 <金剛經三家解二 15>
 b. 밧긔 그르메 琉璃 굴·더·시·니 <月印千江之曲 15章>
 c. 如來·스·귀 ·굴·조·오·릴·씩(起無上慧等同如來)<法華經諺解五 195b>

그래서 (4)에는 ‘굴’이 단독으로 등장하고 (5)에는 ‘ㅎ’를 隨伴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6)으로서 (6)에 나오는 밑줄 친 ‘굴’은 이미 ‘ㅎ’와 合成하여 用言으로 활용된 것이지만 ‘ㄷ, ㅈ’ 앞이라는 특수한 음운 환경에 따라 ‘ㅎ’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예들이다.

이런 현상은 釋讀口訣 ‘如支’에서도 마찬가지로서 ‘如支’는 ‘ㄴ’을 수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 (7) a. 如_ㄷ是、第八心_ㄷ一切境界_ㄷ+清淨具足_ㄷハ_ㄷハ_ㄷ <金光明經三 2:13-14>
 b. 法身_ㄷ 如_ㄷ虛空、智慧_ㄷ 如_ㄷ大雲、<金光明經三 7:14>
 c. 如_ㄷ是、信解_ㄷ生尸已_ㄷハ_ㄷ斤 <瑜伽師地論卅 05:04>
 d. 不_ㄷハ_ㄷハ_ㄷ能、如_ㄷ實、觀察諸法_ㄷ、 <瑜伽師地論卅 10:11-12>
 e. 如_ㄷ是、調_ㄷハ_ㄷハ_ㄷ衆生乙、<華嚴經十四 13:4>
- (8) a. 譬_ㄷ 如_ㄷ虛空、及轉輪聖王、ハ_ㄷ、<金光明經三2:17>
 b. 譬_ㄷハ_ㄷ 如_ㄷ空谷_ㄷ七響、<金光明經三 13:15>
 c. 如_ㄷハ_ㄷ聖弟子、或與_ㄷ衆_ㄷ、同居_ㄷ <瑜伽師地論卅 20:5>

5) 이 合成語는 ‘굴·ㅎ-’>‘굴-’>‘갈-’으로 발전하여 간다.

d. 如_ㄹ支_ㄷ 有_ㄹ 隨意妙寶珠_ㄹ、<華嚴經十四 10:8-9>

즉, (7)에서는 ‘如支’가 ‘ㄷ’ 없이 단독으로 쓰이고 있어 앞의 (4), (6)의 ‘ㄹ’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8)에서는 ‘如支’가 ‘ㄷ’를 수반하여 쓰임으로서 앞의 (5)의 합성어 ‘ㄹᄃᄃ’의 모습을 보여 준다. 즉, 口訣語 ‘如支’는 부사로서 ‘ㄷ’와 합성으로 用言이 된다는 점에서 ‘ㄹ’과 꼭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7a, c, d, e)는 ‘如支’가 부사로 쓰인 예로서 앞 (4)의 ‘ㄹ’과 같은 모습이고, (7b)의 ‘如支’는 用言으로 활용하였는데도 ‘如支’가 ‘ㄷ’의 개입 없이 어미 ‘ᄃ(저)’에 바로 연결되는 점이 (6)의 ‘ㄹ’과 꼭 같다. 더구나 그 환경이 꼭 같은 ‘ㄷ’ 앞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如支’와 ‘ㄹ’은 하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 준다.

실지로 ‘如支’에는 ‘ㄹ’을 대입하면 문맥이 통하지만 그 자리에 ‘다’를 대입하면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반대로 ‘如ㄹ’의 자리에는 ‘다’를 대입하면 문맥이 통하지만 그 자리에 ‘ㄹ’을 대입하면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다음 例文은 그 단적인 標本이다.

(9) a. 香_ㄹ 如_ㄹ支_ㄷ 車輪、<舊譯仁王經上 2:14> ‘ㄹᄃᄃ’는 없음.

= 香은 車輪 다ᄃᄃ (筆者 轉寫) ‘다저’는 非文.

b. 法身_ㄹ 如_ㄹ支_ㄷ 虛空、智慧_ㄹ 如_ㄹ支_ㄷ 大雲、<金光明經三 7:14> ‘*支ᄃᄃ’는 없음.

= 法身은 虛空 ㄹᄃᄃ 智慧는 大雲 ㄹᄃᄃ ᄃᄃ야 (筆者 轉寫) ‘*ㄹᄃᄃ저’는 非文.

만약에 (9b) ‘如支ᄃᄃ’에서 ‘如支’에 ‘다’를 대입하여 ‘*다저’가 되면 문맥이 非文이 되며, 반대로 (9a)의 ‘如ㄹᄃᄃ’의 ‘如ㄹ’에 ‘ㄹ’을 대입하여 ‘*ㄹᄃᄃ저’가 되면 역시 非文이 된다. 왜냐 하면, ‘*다저’는 ‘다ᄃᄃ저’가 정상이며 ‘*ㄹᄃᄃ저’는 ‘ㄹᄃᄃ’가 정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저’는 ‘ᄃ’가 들어가야 정상이 되고, ‘*ㄹᄃᄃ저’는 ‘ᄃ’이 탈락하는 것이 정상이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ᄃᄃ’와 ‘ㄹᄃᄃ’의 비교를 통하여 ‘如ㄹ’와 ‘如支’를 다 같이 ‘다’로 읽은 先行研究의 難點과 ‘如ㄹ’는 ‘다’로, ‘如支’는 ‘ㄹ’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의 하나를 밝혔다.

박진호(1996:81)의 (37), (38) 예문은 原文 漢字 ‘如’가 ‘다(ㄷ)’로도, ‘ᄃ(ㅌ)’으로도 읽힐 수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 주는 예이기에 약간 변형하여 재인용한다.

A. 如汝所言 → 네 닐·음 ·ᄃᄃ·니·라 <法華2:80a>, cf. 네 :말 다ᄃ·니·라 <月釋12:35a>

B. 如汝所言 → 네 :말 ·ᄃᄃ·니·라 <法華7:146a>, cf. 네 닐·음 다ᄃ·니·라 <釋譯21:45a>

3. 둘째로, 만약에 ‘如ᄃ’가 ‘다’로 읽힌다면 왜 舊譯仁王經에서와 같이 ‘ㄷ’를 쓰지 않고, ‘ᄃ’를 썼느냐 하는 것이다. 金光明經, 瑜伽師地論, 華嚴經 할 것 없이 ‘다’로 소리나는 것은 모두 ‘ㄷ’를 썼는데, 이 경우만 ‘ᄃ’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것이다. 同音異記로 치부해 버릴지 모르나, 華嚴經(疏)의 다음 예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10) a. 諸₁ 仙₇ 行₃ 等₁ ㄴ₇ ㄷ₃ ㄴ₃ 刀(經18:19), 呪術₃ 藥草₃ 等₁ ㄴ₇ ㅌ₃ ㅌ₃ (經19:14-15); 何₇ ㄴ₇ 等₁ ㄴ₇ ㄹ₇ 如來₁ (疏07:20), 何₇ ㄴ₇ 等₁ ㄴ₇ ㄷ₃ 聲聞辟支佛₁ (疏08:02)

b. 衆生₃ 等₁ ㄴ₇ ㄴ₇ 法₁ 如₇ ㅌ₃ 華₃ · (經5:11)

(10a)는 白斗鉉(1996:186)이指摘했듯이 華嚴經이나 華嚴經疏에서 ‘갈다(如)’는 뜻을 가진 ‘等’에는 ‘ㄷ ㄴ₇’을 쓰고, 같은 音相이라고 하는 ‘如’에는 ‘ᄃ’를 쓸 수 있겠는가? 더구나 (10b)는 한 文章 안에 ‘等₁ ㄴ₇’와 ‘如₇ ㅌ₃’가 같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두 口訣字가 같은 音을 표기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혹시 ‘等’과 ‘如’를 구별하기 위해 특별히 다른 口訣字를 썼다고 할지 모르나, 역시 白斗鉉이 지적한 바 舊譯仁王經에는 ‘若’에도 ‘如’에서와 같이 ‘ㄷ ㄴ₇’를 붙였다는 것을 想起하라.⁶⁾

6) 예컨대, “爲若₁ ㄴ₇ ㄴ₇ 此₃ ·”(14:14), “譬₁ ㄴ₇ 若₁ ㄴ₇ 牛₃ 二角₃ ·”(15:03).

이 모든 것이 ‘如支’를 ‘다’로 읽은 데서 오는 모순된 현상들이다.

필차처럼 ‘如支’를 ‘ᄒ’으로 읽으면, 없는 ‘ᄒ, 히’를 보충하는 구차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 아니, 그와는 반대로 보충하면 도리어 문맥에 맞지 않는다.

끝으로, ‘如支’를 ‘다’로 읽는 연구자들 가운데는 ‘ᄒ’나 ‘히’를 보충하지 않고 (12b)처럼 그냥 ‘다’라고만 읽어서, 一貫性을 견지하는 경우를 보자.

(12) a. 如支 是、供養_{ニテ}導師乙(、) <華嚴經十四 17:2-3>

b. [沈在箕-李丞宰 1998의 한글 轉寫] 이 다 ᄒ 導師를 供養ᄒ거며

c. [筆者의 解讀法] 이 ᄒ ᄒ 導師를 供養ᄒ거며

(12b)는 一字一音으로 一貫性이 있다는 면에서는 좋은 일이나, 반면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말은 ‘다-’가 아니라 ‘다ᄒ-’라는 역사적 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여러 가지로 보아 ‘如支’는 역시 ‘ᄒ’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華嚴經의 如支: 華嚴經卷十四에 나오는 ‘如支’도 ‘ᄒ’으로 읽어야 한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華嚴經의 경우 적어도 ‘如支’의 경우만을 보면, 金光明經이나 瑜伽師地論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 그것은 設或 ‘支’가 이른바 ‘指定文字’에 속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ᄒ’이 ‘如’의訓임에는 틀림없으며, 그 중에서도 鄭在永(1998:123)이 지적한 것처럼 보다 “문맥에 맞게 訓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華嚴經에서는 ‘支’가 ‘如’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漢字에도 붙는데, 이것들까지도 고려하면 문제가 복잡하게 된다는 점이다. 白斗鉉 교수가 ‘支’를 통틀어 ‘히’로 읽으려 한 것도, ‘指定文字’說이 힘을 얻는 것도 華嚴經과 華嚴經疏에 나타난 ‘支’의 복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⁷⁾ 本稿의 논의 대상은 華嚴經 전체의 ‘支’가 아니므로 다른 ‘支’는 잠시 猶豫해 두고, 華嚴經 중에서 ‘如支’만을 대상으로 하여 白斗鉉의 ‘히’(白說)

7) 白斗鉉(1996:186), 李丞宰(1993:357-60).

와 指定文字說에 의한 ‘다’(沈-李說)와 ‘굴’(金說)을 간단히 비교 檢討하려 한다.

첫째, 만약 ‘支’를 ‘히’로 읽으면, ‘如支#’는 ‘굴히(ㄱ티)’로, ‘如支ㄴ’는 ‘굴히(가티)ㅎ’로 合理化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如支ㄴ’에 대해서 ‘*굴히저’로 하면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如支’는 ‘히’로 읽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指定文字說과 관련하여 筆者는 ‘支’가 그 앞의 ‘如’를 訓讀하라는 符號이기보다는, ‘如’를 訓讀한 結果物이 ‘支’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沈-李說과 金說에서 남은 문제는 ‘如’의 訓讀을 ‘다’로 하는 것이 나으나, ‘굴’으로 하는 것이 나으나 하는 것이다. ‘다’가 불합리하고 ‘굴’이 合理的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언급했으니, 독자들의 판단을 바란다.

7. 여기서 華嚴經에서 ‘如支’를 ‘굴’으로 읽는다면, 餘他の ‘支’도 ‘굴’으로 읽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難問에 부딪친다. 여기 대해서는 指定文字說도 있지만 “(音讀하지 말고) 訓讀하라”고만 ‘指定(指示)’하고 “어떻게 訓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암시도 주지 않는 指定文字說로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겠기에 필자의 直觀的인 생각 하나만을 제시하고 正答은 숙제로 돌리기로 한다.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高麗 釋讀口訣 文獻에 나타난 ‘如支’는 하나의 確固不動한 口訣語로서 정립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에서는 ‘支’는 반드시 ‘如’에만 붙고 다른 漢字에는 붙지 않는다. 逆으로 ‘如’도 舊譯仁王經을 제외하고는 모두 ‘支’만을 취하고 있다.⁸⁾ ‘如’와 ‘支’는 不可分離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如支’는 口訣單語(口訣語)로서 定着되어 있는 것이다. 華嚴經의 ‘如支’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華嚴經에서 ‘如支’의 ‘支’와 餘他の ‘支’는 異質的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華嚴經의 ‘如’에 붙은 ‘支’는 金光明經-瑜伽師地論 系列의 표기법을 따른 것이고, 餘他の ‘支’는 그와는 다른 어떤 系列, 또는 華嚴經 獨自의 표기법을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文獻에 나타난 口訣字 ‘支’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다른 계열

8) 다만 문맥으로 보아 ‘(마치) ~와 같다’의 뜻을 가지고, 그 論項에 格標識가 없는 경우, 즉 [表-1]의 첫째 경우(如ㄱ系)에 限하고, 如支系는 제외한다.

이 혼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餘他の ‘ㄷ’가 붙은 口訣語는 “故支, 能支, 善支, 則支, 離支-, 免支-, 元支支-, 安隱ㄴヒ支-, 養ㄴヒㄴヒ支立” 등이 있다(李丞宰 1993:357). 白說에 의하면, 이들이 모두 ‘히’로 읽힐 수 있고, 李(丞宰)說에 의하면 이 중 ‘支’는 指定文字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리 訓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 대한 판정은 현재로서는 쉽게 할 수 없으나,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 ‘支’ 중에는 誤記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 하나의 예로서 筆者의 눈에 띄는 것은 ‘能支’(11:12, 11:15, 11:23, …)와 ‘能支’(10:2, 10:20, 12:1, 14:7-8, …)가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文脈을 따져 보아도, 兩者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能支’와 ‘能支’는 같은 語形을 나타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것은 ‘支’와 ‘支’의 字形의 類似性에서 오는 混記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⁹⁾

이런 점으로 보아 華嚴經의 口訣字는 書誌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Ⅲ. ‘如ㄷ’와 ‘如ㅁ’ 및 ‘如ㅅ’의 종합 解讀法

1. ‘如ㄷ’는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에, ‘如ㅅ’는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에 나오며, 華嚴經에는 ‘如ㅁ’도 하나 나온다. 對格 또는 處格 名詞(形)를 취하는 것으로 보아 動詞로 쓰인 것으로, 뜻이 ‘如ㅅ’, ‘如支’와는 달리 ‘따르다’임은 말하였거니와, ‘如’라는 漢字의 字源으로 보면, 이런 동사적인 뜻이 기본 라는 것이 『說文解字』 이래 많은 文字學者들의 견해인 것 같다.¹⁰⁾

9) 그러나 沈在箕-李丞宰(1998)는 ‘能支’와 ‘能支’를 엄격히 구분하려고 애쓴 흔적을 볼 수 있다. ‘能支’의 ‘支’는 指定文字로 보아 ‘能’을 ‘잘’로 訓讀한 반면, ‘能支’의 ‘支’는 音讀字로 보아 ‘(可)能’의 古訓 ‘어루’에서 ‘어-’를 따고 ‘支’(←知)에서 ‘디’를 취하여 ‘어디?’라는 試案을 내 놓았다.

10) <說文解字>에 ‘如, 從順(따르고 순응함)也’라 하였고, ‘口出令 女從之(입(口)으로 명령을 발하면, 여자(女)가 이에 따름)’이라는 해설(林義光)도 있다(<形音義綜合大字典> 참조).

2. 먼저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의 ‘如_ㄱ’부터 보자.

- (13) a. 如_ㄱ諸_ㄱ法相_ㄱし、悉_ㄱ 能_ㄱ支 通達_ㄱ <華嚴經十四 2:14-16>
 b. 則能 如_ㄱ法_ㄱし、供養_ㄱシ白ヒテ_ㄱ 佛_ㄱし、 <華嚴經十四 11:11>
 c. 若能 如_ㄱ法_ㄱし、供養_ㄱシ白ヒテ_ㄱ佛_ㄱし、 <華嚴經十四 11:12>
 (14) a. 如_ㄱ今_ㄱし、無_ㄱセコ_ㄱ 異_ㄱシ、 <舊譯仁王經 2:5>
 b. 如_ㄱ法_ㄱし、修行_ㄱシ <舊譯仁王經 3:19>

위의 例文들의 ‘如_ㄱ’는 앞의 ‘如_ㄴ’, ‘如_ㅅ’와는 달리 對格(__し)이나 處格(__し +)의 論項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문맥상 ‘如_ㄱ’는 “~를/에 따라(in compliance with/according to)”로 새기는 것이 순리이고, ‘如_ㄴ’, ‘如_ㅅ’처럼 “~같이/같다(like ~)”로 새기면 이상하게 된다.¹¹⁾ 그런데 通說은 ‘如_ㄱ’를 “~같이/같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口訣字 ‘_ㄱ’의 吏讀音 ‘_ㄱ’을 근거로 ‘_ㄱ’으로 읽었으나, 이것은 문맥을 고려할 때 때 문제가 있다.

‘如_ㄱ’를 ‘_ㄱ’으로 읽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如_ㅅ’를 ‘_ㄱ’으로 읽은 2章의 논의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왜냐 하면, 가령 華嚴經의 경우를 보면, ‘如_ㄱ’와 ‘如_ㅅ’가 공존하는데, 같은 語形(=音形)을 다른 口訣字로 나타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華嚴經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環境에서 배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音を 나타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如_ㅅ’가 ‘_ㄱ’을 나타냈다면 ‘如_ㄱ’는 다른 어떤音を 나타낸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通說에서 ‘如_ㄱ’를 ‘_ㄱ’으로 읽은 것은 전적으로 口訣字 ‘_ㄱ’만을 보고 意味나 統辭的 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口訣字 ‘_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를 느낀다.

‘_ㄱ’를 吏讀에서 ‘_ㄱ’ 또는 ‘_ㅅ’으로 읽는 것은 周知하는 바다. 그러면 吏讀에

11) 다만 여기서 ‘_ㄱ’은 15-16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_ㄱ’을 중심으로 할 때 그렇다는 말이다. 그래서 (14b)는 ‘...이제를 따라...’로 새기면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이제를 방불(旁勃)하게...’로 바꾸어 놓으면 자연스럽다.

서는 왜 ‘ㄸ’을 ‘ㄹ’ 또는 ‘ㄱ’으로 읽는가? 필자는 ‘ㄸ’가 ‘邊’에서 온 것으로 추정한다. ‘邊’의 主訓은 現代 標準語로 ‘가’이고 方言 중에는 ‘갓’도 있다. 中世文獻에는 ‘ㄹ’(訓蒙字會·中)으로 되어 있다. 吏讀音 ‘ㄹ, 갓’도 여기서 나왔을 것이며, ‘가장자리’라는 派生語도 있어 ‘ㄹ, 갓’을 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釋讀口訣의 경우도 이들과 大同小異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如ㄸ’는 어떤 語形을 나타낸 것일까? ‘ㄱ’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위에 말한 ‘ㄹ, 갓, ㄹ, 갓’ 등과 전혀 無關한 音相을 가진 語形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口訣字 ‘ㄸ’가 나타내는 音相이 ‘如ㄸ’라는 口訣語 전체의 音相을 다 나타낸 것으로 볼 수만은 없고, 그 뒤(또는 앞)에 다른 音이 첨가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如ㄸ’가 나타내는 語形은 ‘ㄹ’과 비슷한 音相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나머지 音에 대한 情報를 얻기 위해서는 ‘如ㄸ’와 같은 환경에서 相補的 分포를 보이는 ‘如ハ’와 ‘如甲’을 아울러 고찰할 것이 요구된다.

3. ‘如ハ’: 다음에 ‘如ハ’의 예를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에서 보기로 하자.

- (15) a. 轉輪聖王→主兵寶臣₁₁ 如₁₂意₁₃・處分₁₄ノ尸 <金光明經三 2:15>
 b. 大事→大用₁₅ノ尸₁₆ 如₁₇意₁₈七所₁₉・願₂₀ノ₂₁・悉₂₂皆 成就₂₃ノ₂₄・大歡喜
 ... <金光明經三 6:24>
 c. 隨₂₅其所₂₆・須₂₇ヒ₂₈ノ尸・如₂₉意₃₀・功給₃₁ノ₃₂悉₃₃(₃₄)令₃₅リ₃₆七₃₇ノ₃₈七₃₉具足₄₀・
 <金光明經三 15:13-14>
 (16) a. 如₄₁其₄₂次第₄₃ 亦 有₄₄七₄₅四種 修習 對治・ <瑜伽師地論計 9:7-8>
 b. 如₄₆先₄₇下所₄₈說₄₉ノ₅₀・漸次₅₁→能₅₂分₅₃令₅₄リ₅₅ナ₅₆セ₅₇・解脫圓滿₅₈・ <瑜伽師地論計 07:15-16>
 c. 如₅₉ハ₆₀所₆₁說₆₂ノ₆₃・相₆₄シ・ <瑜伽計 28:07>
 d. 修習₆₅ノ尸₆₆如₆₇ハ₆₈所₆₉得₇₀ノ₇₁道₇₂シ・ <瑜伽計 31:21>

(15), (16) 예문의 ‘如ハ’가 문맥상 모두 對格을 취하고 있는 점이 ‘如ㄸ’와 같다. 여기서 우리는 ‘如ㄸ’와 ‘如ハ’가 동일한 語形을 나타내었으리라는 추측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口訣字 ‘ハ’는 ‘ㄷ’와는 달리 ‘기(ㄱ)’라는 音相을 나타내는데, 이 ‘ハ’는 借字表記에서 대부분 語末音을 나타낸다. 따라서 ‘ㄷ’가 ‘ㄱ’이라는 音相을 나타낸다고 하면, 둘을 앞뒤로 연결하여 ‘-ㄱ-기(ㄱ)’라는 音相을 가정할 수 있다. 南豊鉉(1998·1999b)이 ‘如ハ’를 ‘곧기’라고 읽은 것은 이때문일 것이지만, ‘곧’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筆者는 전부터 ‘如ㄷ’와 ‘如ハ’에서 ‘ㄴ즈기(ㄴ죽)’라는 語形을 再構했지만, 그 假說은 다음에 考察할 ‘如印’에 의해서 확실히 뒷받침된다.

4. ‘如印’: 이제 華嚴經에 단 한 번 나오는 ‘如印’의 예를 보자.

(17) 彼刀亦ㄴ 如其差別法乙、隨世所宜、而化度ㄴナク <華嚴經十四 18:9>

위의 예문에서 ‘如印’은 對格을 취하고 있는 점이 ‘如ㄷ’, ‘如ハ’와 같으며, 따라서 의미상, 統辭上 이들과 같은 語形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如印’에 대해서는 南豊鉉(1994→1999a:170)은 吏讀에서 ‘印’이 ‘긔’로 읽히는 것에 근거하여 ‘곧’으로 읽었다. 그러나, 筆者는 이 ‘印’을 ‘卽’자의 略體(變體)로서, 이를 音讀하면 ‘죽’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如印’은 ‘ㄴ죽’으로 읽으면, ‘如ㄷ’, ‘如ハ’와 통하리라고 본다.

다음 표는 이상에서 口訣 記號를 분석하여 다섯 口訣語를 읽은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表 3]

原字	口 訣 記 號		口 訣 單 語		
	借字	音	口訣表記	한글 轉寫音	意味
多	ㄱ	다	如ㄱ(ㄴ)	다(히)	(마치) ~ 같음
支(枝)	支	곧	如支	곧	(마치) ~ 같음
邊	ㄷ	-긔-	如ㄷ	ㄴ즈기(ㄴ죽)	~를/에 따름
卽	印	-죽-	如印	ㄴ즈기(ㄴ죽)	~를/에 따름
只	ハ	-기(ㄱ)	如ハ	ㄴ즈기(ㄴ죽)	~를/에 따름

1) 原字推定: ‘ㄸ’의 原字가 ‘邊’이고 ‘ㄹ’의 원자가 ‘卽’일 것이라고 推定한 것은 이 번 논문을 쓰는 중에 우연히 생각 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 借字가 바로 漢字 ‘這, 印’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原字(本字)가 따로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筆者도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쳐 버린 일인데, 그 原字가 달리 있을 것이라는 發想을 한 것은 ‘如ㄸ’, ‘如ハ’, ‘如ㄹ’의 語形 再構에 고민하는 와중에서였다.

‘ㄸ’는 漢字 ‘這’가 중국에서 宋元代的 語錄, 小說 등 口語類에 많이 쓰여서 근대의 白話文에 이어지고,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전에는 거의 안 쓰였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를 借字로 이용할 기회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글자의 변형일 가능성을 생각한 것이다. 原字를 ‘邊’으로 추정한 것은 字典에서 辵(辵)部를 찾아 나가는 중에 ‘邊’에 이르러 ‘갓 변’이라는訓이 입에서 나오면서 ‘ㄸ’이 머리에 떠 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證據(出典)를 딸 것은 없고 다만 草書(예컨대, 臺灣의 正中書局에서 나온 “形音義綜合大字典”(增訂本1017면)에 제시된 陳與義의 草書를 보면, ‘ㄸ’처럼 된 받침 부분은 완전히 같고 몸체 부분의 中下部가 비슷하다.

‘ㄹ’의 原字가 ‘卽’이라는 發想은 우연히 머리에 떠 오른 것이다. 처음부터 ‘ㄹ’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고민도 없었다. 왜냐 하면, ‘如ㄹ’은 한 예밖에 없으니까 무시하고 ‘ㄸ’, ‘ハ’만으로 ‘ㄹ’을 만들어 놓은 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非夢似夢間에 ‘ㄹ’의 原字가 ‘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일어나서 두 글자를 비교해 보니, 영락없이 닮았다. 그런데 이것이 ‘ㄹ’을 정당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줄은 미리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놀랍게도 ‘卽’의 음은 ‘ㄹ’의 ‘ㄹ’을 확실히 뒷받침해 주었다.

2) 文獻에 나타난 ㄹ(ㄹ)의 뜻과 쓰임: 이제 ‘ㄹ’의 쓰임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國語史上 ‘ㄹ(ㄹ)’-는 現代語로는 ‘가지런-’이라는 形態로 남아 있고, 흔히 漢字 ‘齊(가지런할 제)’의 譯語로 많이 쓰여 왔다. 그러기에 辭書類, 예컨대, <類合(下59)>은 ‘齊’를 ‘ㄹ 제’로 訓音を 매김하였다. 南豐鉉(1999b)이 瑜迦師地論의 口訣語句 “齊, 此, (16:5)”를 “이를 ㄹ아”로 읽은 것은 意味深長하다. 다음(18)은 ‘ㄹ, ㄹ, ㄹ’이 들어 있는 예문들

을 모은 것이다.

- (18) a. 큰 福이 하늘과 가죽 하야(洪福齊天) <朴通事諺解 重刊本上 1a>
 너브신 복이 하늘과 그트샤(洪福齊天) <朴通事上 中宗朝本 1a>
 b. 반상 들기를 눈섭의 마즈기 하기는(學案齊眉) <女訓下 8a>
 c. 한번 덤을어 그죽 하면(一與之齊) <小學諺解二 48a>
 d. 물 석슬 마즈기 하며(齊轡) <杜詩諺解卅 17b>
 e. 그죽 제(齊) <類合 下59>
 f. 마즈기 모돈(齊集) <金剛經諺解 2b>
 g. 敢決하요몬 엇메 다뭇 글디 아니하리오(敢決豈不與之齊) <杜詩諺解十七 10b>
 h. 도련하몬 玉것 머리와 호가지로다(圓齊玉筋頭) <杜詩諺解十六 73a>
 i. 선비 術業은 큰 일홈과 그죽하도다(儒術大名齊) <杜詩諺解十九 13b>
 j. 낮빛출 그죽이하며(齊顏色) <小學諺解三 9a>

이 예문들을 보면 ‘마즈기(마죽)’는 ‘같다(如)’는 뜻과 통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a)의 두 예문은 원문의 ‘齊’를 ‘마죽하야’로도 ‘그트샤’로도 번역함을 보여 주고 있다. (b)의 “눈섭의 가즈기 하기는”은 “눈섭(높이)과 같이 하기는”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고, (c, f)의 ‘마죽, 마즈기’는 ‘함께, 같이’의 뜻이다. (g)에서는 ‘齊’를 아예 ‘글디(같이)’로 번역하고 (i)에서는 ‘호가지’(同, 如)로 번역하였다.

漢字 ‘齊’의 최초의 뜻은 複數의 事物이 크기가 ‘꼭 같다’(가지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引伸義가 생겨서 ‘如’와도 뜻이 겹치는 것이 있다. 그래서 <漢語大詞典>1993年版의 ‘齊’의 풀이 ①에는 ‘如와 같다(猶如)’, ‘비슷하다(好像)’라고 定義하였다.

이런 점들로 보아 ‘마즈기(마죽)’는 ‘如’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如(ㄱ·支·ㄷ·ハ·印)’를 ‘마즈기(마죽)’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15세기 이후의 한글 文獻에 나오는 ‘마즈기’는 對格 및 處格 論項을 취하기는 하지만 “~를/에 따라서”라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 점이 高麗 釋讀口訣에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이 단어의 의미와 용법이 달라진 결과일 것이다. 이것은 마치 ‘더

블다'가 처음에는 '데리다(take with)'라는 타동사였으나, 나중에는 점점 동사성을 잃어버린 것과 흡사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19) a. 阿難이를 더브러 가시니 <月印千江之曲 187>

b. 父母로 더브러 다르미 업스니라 <警民篇諺解 1b>

c. 사름과 더브러 사흘이 홈로움이 잇고 <警民篇諺解 9a>

(19a)의 '더브러'는 對格 論項을 가진 他動詞로 쓰였지만, (19b, c)와 같이 '~로, ~와/과'를 가진 論項을 취하여 부사화되었고 오늘날에는 '~와/과'라는 조사만 '더불어'는 필요없을 정도로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ㄴ즈기'도 高麗時代에는 타동사적인 '따르다'라는 타동사로 쓰이던 것이 그 후에는 차차 부사적으로 쓰이게 된 것일 것이다.¹²⁾

요컨대 '如(如, 八, ㄱ)'은 그 口訣字 '如' 하나만으로 보면, 'ㄱ'으로 읽을 것 같이 보이나, 이와는 대립적 환경에 나타나는 '如ㄷ'가 'ㄱ'으로 읽힌다는 사실과 아울러, 같은 단어에 대응하는 '如八, 如ㄱ'의 구결자 '八, ㄱ'의 表音으로 보아 'ㄴ즈기(ㄴ죽)'로 읽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IV. 結 論

口訣語를 읽는 데는 漢字의 의미와 거기 부가된 口訣字가 어떤 音相을 표기한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如(ㄴ, ㅈ, 如, 八, ㄱ)의 해독에서 通說에서는 'ㅈ, 八, ㄱ'에 대한 본격적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예컨대 '如ㅈ'에 대하여 'ㅈ'가 어떤 音을 나타내고자 했는가를 철저히 따지지 않고 단순히 '如ㄴ'과 같은 환경에서 나타난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똑같이 'ㄴ'로 읽어 버렸다. '如八'에 대해서도 '八'가 '기(ㄱ)'로 읽히는 사실은 잊어 버린 듯 '如ㅈ'과 같은 환경에 나타난다는 사실만 重視하여 南豐鉉

12) 그러나, 주의할 것은 'ㄴ즈기'는 다시 'ㅎ다'와 合成語를 이루어 'ㄴ즈기ㅎ다'라는 새로운 타동사가 되었다.

(1998, 1999b) 외에는 똑같이 ‘ㄱ’으로 읽었고, ‘如ㄷ’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每個 口訣字의 字源과 그것이 나타내는 音相을 추구하는 데 나름대로 최대한의 힘을 기울였으며, ‘如ㄱ’과 ‘如ㄷ’에 대해서는 통설에서 看過된 形態論的, 音韻論的 차이를 分析해 보았다.

借字 ‘ㄷ’은 ‘支(枝)’에서 왔다고 보고 그 訓이 중세국어 ‘갓’임에 착안하여 ‘ㄱ’을 표기한 것으로 본 것, ‘ㄷ’은 ‘邊’이 原字이기 때문에 ‘ㄷ’으로 읽힌다고 본 것, ‘ㄷ’은 ‘卽’에서 온 것으로 보아 ‘죽’의 표음으로 본 것 등이 구결기호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그리고 ‘如ㄱ’과 ‘如ㄷ’의 형태적, 음운적 비교에서 ‘如ㄱ’은 반드시 ‘ㄴ’을 수반하는 데 반해, ‘如ㄷ’은 이를 수반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兩者는 같은 單語의 표기가 아님을 논증하여 通說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였다.

‘如ㄷ, 如ㄱ, 如ㄷ’을 ‘ㄱ’으로 읽은 것은 ‘ㄷ, ㄷ, ㄱ’의 音價 /ㄱ, ㄱ, ㄱ(ㄱ)/를 다 만족시키면서 ‘如(같다)’의 뜻을 포함하고 對格, 處格의 論項을 가진 말을 골라 본 결과였다. 문헌에 나타나는 ‘ㄱ’은 15세기 이래의 용법으로만 보면 口訣文의 ‘如ㄷ, 如ㄱ, 如ㄷ’과 완전 일치하지 않지만 이는 의미·문법상의 변화의 결과로 보았다.

통설에서 ‘如ㄷ, 如ㄱ, 如ㄷ’을 ‘ㄱ’으로 읽은 것은 ‘ㄷ’만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ㄷ’, ‘ㄱ’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如ㄷ’이 ‘ㄱ’인 사실과 相衝되어 논리상 ‘如ㄷ’의 ‘ㄱ’이 참이면, ‘如ㄷ, 如ㄱ, 如ㄷ’의 ‘ㄱ’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으며, ‘ㄱ’은 의미상, 문법(통사)상 ‘如ㄷ, 如ㄱ, 如ㄷ’와는 맞지 않음을 밝혔다.

결국, ‘如ㄱ’과 ‘如ㄷ’은 의미와 통사상은 유사하지만 구결 기호의 表音으로 보아 ‘如ㄱ’은 ‘다(訖)’에, ‘如ㄷ’은 ‘ㄱ’에 대응하며; ‘如ㄷ, 如ㄱ, 如ㄷ’은 의미와 문법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로 보고, 그 구결 기호 ‘ㄷ, ㄷ, ㄱ’의 最小公倍數인 ‘ㄱ’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필자의 현재의 판단으로는 이상과 같은 독법이 최선의 것으로 보이지만, ‘ㄱ’에 대해서는 現存 한글 文獻의 ‘ㄱ’과 高麗 釋讀口訣의 ‘如ㄷ, 如ㄱ, 如ㄷ’과 100%의 일치를 보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논문을 쓰면서 筆者의 공부가 얼마나 모자라는가 하는 것과 先行研究의

成果가 얼마나 고마운가를 절실히 느꼈다. 특히 南豐鉉 교수의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研究”와 “口訣研究”誌 第3輯에 실린 南豐鉉, 沈在箕, 南星祐, 李丞宰, 鄭在永 등 여러분의 論文, 그리고 白斗鉉(1996) 등은 이 論文을 쓰는 동안 거의 손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이용한 길잡이였다. 덕분에 많은 勞力과 時間의 節約을 얻었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비판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 논문이 일차적으로 완성된 뒤 口訣學會 第26回 共同研究會 (2002.7.19,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실, 학술진흥재단 후원)의 口頭發表時의 토론문(이병기)에 의해 박진호(1996:81)에 인용된 月印釋譜·釋譜詳節과 法華經의 대비되는 예문은 ‘如 l’를 ‘다’로, ‘如 ㅈ’를 ‘곧’으로 읽는 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구결, 석독구결, 구결문, 구결어, 구결자, 차자표기, 해독법

참고 문헌

- 金斗燦(1999), 다시 토 ‘ㄸ’와 ‘ㅍ’자에 대하여, 口訣研究 5.
- 金永萬(2000). 瑜伽師地論의 “由 ㅈ-”와 “如 ㅈ-”의 讀法에 대하여. 口訣研究 第6輯.
- 南星祐-鄭在永(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 南豐鉉(1994). 「新譯華嚴經」卷14의 高麗時代 釋讀口訣. 國文學論集14. 檀國大學 國文科.
- 南豐鉉(1998). 「瑜伽師地論」(卷20)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 南豐鉉(1999a). 口訣研究. 太學社.
- 南豐鉉(1999b).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研究. 太學社.
- 박진호(1996). 奎章閣 所藏 口訣資料 楞嚴經 2種에 대하여. 口訣研究 1.

白斗鉉(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 支와 矢 - 그 讀音과 文법기능. 어문논
총 27. 경북어문학회(대구).

白斗鉉(1996). 高麗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그 通時的 變遷. 第一回 아시아 諸
民族의 文字에 대한 國際學術會議 發表論文(159-191). 口訣學會. 서울.

沈在箕-李丞宰(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李丞宰(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國語學 23.

鄭在永(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 이 논문은 2002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5월 2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2년 6월 1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
문임.